사회복지시설 탐방 ㉝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원장 백 기 원

자립심과 자아존중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

"한마음지역아동센터는 소외되고 불우한 어린이들이 자립심을 갖도록 도우며, 자아존중의 마음을 키워 가는 곳입니다"

포천시 신읍동 유한아파트 상가內 지하에 위치한 한마음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로 분류된 시설로 지난 8월 30일 관인 2호로 신고된 시설이다.

한마음지역아동센터는 백기원(42) 목사가 한마음교회 교회설립 초기인 2002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시설로, 현재는 '나눔과 기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나눔과 기쁨에서 작지만 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눔과 기쁨' 운동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운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약 200여명의 활동가에게 소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익의 0.2%를 매월 기부하고 있다.

시설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3~4시 사이부터 저녁 7시 이후까지로 저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공식적으로 유치원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맡겨질 수 있으며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는 49명 정원에 12월 현재 20여명이 맡겨져 있다.

아이들 지도는 현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백기원 목사를 포함 3~4명이 지도하고 있다.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는 주로 저소득, 맞벌이, 빈곤 가정 아이들이 맡겨지는데, 하교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도 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정서안정을 위한 미술지도, 피아노, 독서지도, 컴퓨터 및 학습지도를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근 포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체육활동을 하기도 한다.

한마음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지도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교육이다.

백 목사는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주로 빈곤층, 맞벌이 부부 등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며 "미술치료 요법 중 HTP 성격검사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살펴 개인별로 적당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전하고 싶지만 기반을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알찬 아동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한마음지역아동센터는

한마음지역아동센터는 소외받고 불우한 어린이들 자립심을 갖도록 도우며, 자아존중의 마음을 키워가는 곳이다.(원안은 원장 백기원 목사)

양질의 교육과 지도봉사자 섭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 목사 주변의 고학력 목사 등을 초빙해 학습지도 및 심성 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마음지역아동센터는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일부 실비전환을 유도, 부모들의 관심과 양질의 교육을 위한 토대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백 목사는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빈곤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생활형편이 나쁘지는 않으나 아이들 하교 후 시간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실비를 받아 운영해 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시설의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지도교사와 아이들 정서지도를 위한 음악봉사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노후한 컴퓨터 교체, 다량의 아동도서 등 아동센터로서 갖춰야 할 것이 많다.

한편 백 목사는 현재의 아동센터를 앞으로 복지관의 개념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최근엔 먹는 것에 대한 갈망보다 마음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복지관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간판도 복지관으로 내걸고 복지관의 개념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목사는 "포천에도 아동시설에 대한 이해가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더욱 많은 아동관련시설이 설립돼 많은 아이들이 미래의 역군으로 올바른 성장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 : 농협 585-01-016604 (예금주:한마음지역아동센터)

문의 : 031-536-0048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쉼터

풍속과 미신

석 혜 승
보문정사 주지

얼마 있으면 동지가 돌아온다. 동지는 일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이 극에 이르지만 이날을 계기로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하여 설 다음으로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고 특별히 팥죽을 쑤어 귀신을 쫓고 복을 기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미풍양속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며 그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한데 최소한 미신과 민족고유의 풍속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전(2005년 1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류무형유산 심사에서 '강릉단오제'가 인류 구전(口傳) 및 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몇 달 전 특정종교단체에서 강릉단오제를 미신행위로 치부하며 농성에 들어가자 단오제가 미신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강릉시 홈페이지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웃지 못할 일도 있었지만 미신이란 말 그대로 미혹한 믿음을 미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족고유의 풍속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얼과 지혜가 담겨있는 그 민족 고유의 축제이며 이러한 축제는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힘과 세계에 그 민족의 독창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이를 단순한 미신행위로 치부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풍습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우리들의 삶을 더욱 활력 있고 신명 넘치는 활력소로 키워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장학기금 마련 포천人才 육성하겠다"

제23회 재경포천시민회 정기총회 포천인의 밤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조흥 국회의원, 박윤국 시장, 홍성훈 시의회의장 등과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 정동화 명예회장, 이각모 수석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제23회 재경포천시민회 정기총회 포천인의 밤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 주최로 '제23차 정기총회 겸 포천인의 밤'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영길 사무국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정동화 명예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유태열 부회장에게 축하패 전달, 이한동 전 총리 격려사, 고조흥 국회의원 축사, 박윤국 시장 축사, 홍성훈 시의회의장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억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회원을 모집중"이며 "포천시에서도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이 모든 기금이 마련되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거나 연구 또는 유학을 못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며 포천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동 전 총리는 "재경포천시민회는 83년 정치 십부름을 하면서 재경포천군민회로 창립되어 매년 모임을 갖고 있다"며 "초기 창립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고향에 가서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발전했다"고 소개하고 "포천의 더 많은 발전은 이제 후배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주민화합 터전 마련

일동면 길명2리 마을회관 준공

마을회관 준공으로 47번 고속화국도로 갈라졌던 마을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마련됐다.

길명2리(이장 이광민)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포천시 길명2리 512-3번지에 준공된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박윤국 포천시장, 최병덕 포천시의회의원 등 내빈과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김장화 새마을지도자의 경과보고와 이성호 노인회장의 감사패 전달, 이광민 이장의 식사 및 내빈 축사, 준공테이프 절단, 시설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준공에 기여한 박윤국 포천시장과 최병덕 포천시의회의원, 원동환 8사단 16연대 3대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길명2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포천시 길명2리 512-3번지에 준공된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된 마을회관은 부지 1천51㎡에 건평 124.87㎡의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방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시비 1억과 자부담 2천1만원이 투입되 지난 3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4개월 동안 공사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송천마을 주공 2단지 아파트 현판식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천마을 주공2단지(입주자 대표 이경근)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과 화합의 원동력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천마을 주공2단지는 지난 7일 소흘읍 송우리 725-6번지 송천마을 관리사무소 2층 강당에서 이상만 경기도의회의원, 이영재 소흘읍장, 이흥구 포천시의회의원, 이동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박범종 소흘농협조합장 등 내빈과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송천마을은 대지면적 2만710평, 연면적 4만366평, 관리면적 4만262평으로 건설호수 1천184세대중 29평 327세대, 32평 812세대로 총 16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2002년 6월 27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공사를 완공해 4월 4일자로 준공한 송천마을은 지난 4월 26일 입주를 시작 최근까지 1천76세대가 입주해 입주율 91%에 이르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경근 회장을 중심으로 10명의 동대표, 김국재 노인회장과 38명의 회원, 신영숙 부녀회장과 24명의 회원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서 이경근 입주자 대표, 김국재 노인회장, 신영숙 부녀회장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흘읍민과 하나되는 아파트단지를 조성, 하나되는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낙엽과 함께 가신 한승우 할아버님과 離別式

20일전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면서 고인이 된 한승우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제법 쌀쌀한 계절이다. 월중행사로 포천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금요일 노력봉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8시에 강병원 앞에서부터 시작된다. 유해광고물제거와 한승우 할아버님 청소봉사가 정해진 날이다.

하루 전날 사전에 전화를 걸러 내일 집 청소 해드린다고 하니 한 할아버님은 연실 고맙다고 밝고 친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셨는데 하루도 안된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수없이 전화를 걸어도 웬지 받지 않아서 직접 문을 두드리는데 어스름한 불빛과 TV는 켜 있는 상태고 할아버님은 곱게 누워 계셨는데 큰소리로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 양준모 함복순 위원님의 도움으로 불을 켜고 상태를 살피니 편안히 주무시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사랑의 김치 나누기 때만해도 해맑은 미소로 맞이하시고 함께 기념사진 찍은 것이 불과 20일전이고 연탄불도 없이 전기담요 하나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시림에 포천신문사에 요청해서 옥장판도 지원받아 청소 깨끗이 해드리고 따뜻하게 겨울을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도 쉽게 이별의 연습도 없이 훌쩍 떠나셨다.

모든 인생의 길이 험난하다고 느끼시고 많은 고통과 번뇌가 그리고 괴로움이 병행했으리라 짐작은 가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 숨쉬는 현재에서 이세상을 떠날 때 기다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빠른 것이 세월이라지만 봉사에 참여해보면서도 이처럼 가슴 아프고 답답하구 허무함을 말로는 표현이 안되고 서글픈 마음뿐이었다.

포천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이한인 위원장님이하 36명의 위원님들은 119에 신고, 112에 신고, 포천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의 도움으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다.

우리도 남은 인생을 위해 숭고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뒤에 시간이라는 모래밭 위에 발자국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조심스런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 인생은 참되고 그리고 엄숙하고 무덤이 제 갈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주어진 자그마한 운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공평하지 못한 삶의 어두운 생활의식에 사로잡힌다.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 될 수 있는 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걷고 싶다. 나의 새로운 신조라면 확실하게 보다나은 삶을 엮어 참되고 아름다운 노력 봉사의 길을 다짐해본다.

박 혜 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사랑을 실천하는 善行공무원

포천경찰서 경무과 정지웅 경사

평소 투철한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내고향 내이웃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포천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정지웅 경사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정 경사는 지난 4년동안 가산지역 장애인과 독거노인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애로사항과 고민 등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는 등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박봉을 쪼개어 냉장고, 선풍기, 옷, 라면 등 생필품을 추석, 설 등 고유명절때마다 찾아가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다.

또 김장철에는 사랑의 김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무슨일이든지 도움을 주고 있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메마른 사회에 오아시스 같은 신선한 인간미를 심어주는 모범공무원 정 경사께 가산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정 경사 파이팅!

이 현 재
포천신문 조사위원

지난달 29일 포천시 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는 하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 5쌍의 합동결혼식이 마련됐다.

제2의 정착, 새터민 5쌍 웨딩마치

새터민 5쌍은 합동결혼식을 통해 '제2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달 29일 포천시 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는 하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 5쌍의 합동결혼식을 위한 웨딩마치 음악이 울려 퍼졌다.

포천시이미용협회가 마련한 새터민 합동결혼식은 새터민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에게 무료로 혼례식을 올려줌으로서 국민으로서 소속감 및 안정감을 부여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일반 결혼식과 같은 절차로 진행됐으며, 최종규 前포천문화원장의 주례로 신랑 황철준·신부 한성화, 신랑 김정길·신부 백미옥, 신랑 최상국·신부 강현화, 신랑 임광진·신부 전혜순, 신랑 임광철·신부 이근숙이 혼례를 치렀다. 한편 이번 결혼식을 위해 포천시는 신랑신부 웨딩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신랑신부 화장, 피로연, 사진 및 앨범제작, 부케,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및 화장품세트, 원앙금침, 교자상, 주방세트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해외여행기 … 싱가포르 생일잔치 기뻐하는 부모님

가족회의 결과 친정 아버지, 어머니 칠순잔치를 가족여행으로 정했다. 따르릉 전화벨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새벽 5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로 한 시간이 늦어서 서둘러 5시30분에 출발 7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출국수속을 하고 친정식구 18명은 다함께 9시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6시간 30분이 걸려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외숙모가 지팡이를 잡고 불편한 다리로 걸으셨다. 우린 걱정을 하면서 재미있는 여행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연세 드신 분들도 여행하기 좋다고 한다.

우리를 기다리는 현지 가이드를 만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주변이 깨끗하고 고층빌딩은 특이하고 멋있었다. 우리 가족은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맥주파티를 했다. 도란도란 이야기와 함께 싱가포르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외숙모는 지팡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행을 하셨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400만명으로 서울의 3분의 1정도이며 땅은 서울보다 조금 큰 나라로 가족적인 문화의 다민족 국가이다. 오늘날의 '싱가포르'라는 이름은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프라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닌 정부소유이며 깨끗한 물과 거리, 청렴하고 결백한 공무원을 자랑으로 하는 유일한 면세국가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몽골리안 바비큐를 먹으며 여행사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샴페인으로 조촐한 칠순 잔치를 했다. 부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생일축하 노래도 불렀다. 매년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 다 함께 하는 여행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오전 우리는 이웃나라 말레이시아를 다리를 건너 13개 주 중 2번째로 큰 주 조호바루로 향했다. 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며 국민 소득은 4천불, 인구는 2천500만명이다.

마지막 날은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 리버보트를 타고 야경을 보았다.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촬영도 했다.

친정부모님 칠순잔치대신 떠난 동남아 3국 가족여행.

이번 4박 5일 여행에 있어서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살기 좋고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후손에게 훌륭한 문화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겠다.

11월28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안개가 자욱해 착륙이 쉽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하니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서둘러 사랑하는 딸들과 우리를 기다리는 포천으로 향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